

## 기획예산처·중장기전략위원회, AI 전환기 일자리 지원 방향 등 논의

- AI 전환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논의
- 지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논의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6.5.7.(목) 「제5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 < 위원회 개요 >

- (기능)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2012년~)
  - (위원) 권오현 위원장(前삼성전자 회장),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
  - (분과) ①혁신성장반(AI, 바이오 등 주요산업·경제), ②미래사회전략반\*(인구, 교육, 노동, 기후 변화 대응 등), ③거버넌스개혁반(정부혁신, 규제개혁, 균형발전 등) 등 3개
- \* (미래사회전략반, 6명)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분과장),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 김기선 충남대 법전문 교수,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및 환경공학과 교수,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금번 회의에서는 AI 전환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지방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AI 전환기에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되, 적극적 재취업·직업훈련 지원 등 안전망 강화를 함께 추진(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 \* 고용·근로시간 등에 대한 기업의 조정 유연성(Flexibility)을 높이되 실업자 생계유지·재취업 원활화 등 안정성(Security)도 강화(네덜란드, 덴마크 모델)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지방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기술·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 지원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방을 단순 지원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 지역특성 등을 활용한 자생적 성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박철건 (044-214-1610)
		담당자	사무관	박승환 (niceguystar@korea.kr)
	담당자	사무관	어우주 (hidwn@korea.kr)	
	미래전략기획실 포용사회전략과	책임자	과 장	이혜림 (044-214-1710)
담당자		사무관	심지혜 (jihyesim@korea.kr)	

